

제 12 호

연중 제 7 주일

(칠 순 주일)

1973. 2. 18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많은 사제 성소를 위하여

안 북 진 신부

한 군대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휘관들의 양성이 급선무이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가는데 성직자 양성이 불가결의 요소이다. 이례서 그리스도 자신도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사제가 12제자를 선정 교육한 일이었다. 성직자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안네 성인은 "신부 없이 분당을 두어 보아라 30년이 못가서 교우들은 동물들 공경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교구 실정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신부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직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교육이란 위대한 힘을 갖고있다. 모든 주교, 신부들이 누구의 힘으로 어디에서 자라났는가? 내 가정에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대리할 성직자가 나는 일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경사가 먼저 내집, 내 분당에서 많이 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새로운 마음 가짐이 확립되기 바란다.

그리고 또한 성소를 받고있는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요구된다. 좋은 뜻을 품고 성소의 문을 두드렸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성소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문을 등지고 나와야 하는가? 그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으로 성소를 닦는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서 언제나 성소자들이 떠나지 말아야 하겠다.

"추수 할 것은 과연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다. 이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야하는 못 영혼들! 그들도 필경 성직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의 판문을 뚫지 못할 것이니 영혼을 구하려는 주인의 심정 오죽 답답하리!

이례서 그리스도는 "너희는 추수 주인에게 기구하여 많은 일꾼을 보내게 하라"는 기구를 당부하셨다.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구하는 일이고, 인간을 구한다는 것은 온 세상 보화와도 바꿀수 없는 고귀하고 중대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사회와 인류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어찌 보더라도 현대가, 어디서 보더라도 이교적 풍토에 젖어있는 우리나라가, 절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터에는 일꾼이 부족하다. 잡초가 무성히 우거졌을 때 이 나라 주인의 포도밭에는 일손이 부족하다. 목말라 하는 영혼들은 많은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길어다 줄 일꾼은 너무나도 적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실정을 깊이 인식하고 이땅의 성직자 부족에 다 같은 책임을 느끼면서, 이번 교구사업 중의 하나인, 사제양성 후원회에 모든 신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물질 양면으로 그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나는 당신 자비를 굳이 믿으며, 주님의 도우심에 이 마음 크게 기쁘오니, 갖은 은혜 베푸신 아께께 찬미 드리오리다.

□ **독서** (고린토 후서 1. 18-22, 성서 p. 405)
 예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에게는 진실이 있을 뿐이다.

□ **충계송** 복되다, 아쉬운 이와 가난한 이를 생각해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주께서 그를 살려 주시리라.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땅에서 복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의 뜻에다 아니 맡기시리라. ◎나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알리라. 주께서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 **복음** (마르코 1:2-12, 성서 p. 78)
 사람의 아들은 세상에서 사죄권을 가지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사랑이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의 정신으로써,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스러운 나라를 건설키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주여, 해가 밝게 비치고 새가 노래하는 좋은 날씨는 물론,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폭풍이 일어나는 날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감사와 찬미의 나날을 보내게 하소서, ◎

3. 주여,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합당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옵고, 다시는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 맺음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이의 목자시요 임금이신 친주여, 친히 주의 일꾼 아우구스띠노를 성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신도들을 보살피다가, 마침내 맡겨진 양무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영성체송** 주여,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나이다.

* 이 주간의 성경 *

- 19(월) 독서 (로마서 2:6-11, 성서 p.340)
 복음 (마르코 9:13-28, 성서 p.96)
- 20(화) 독서 (로마서 2:12-16, 성서 p.340)
 복음 (마르코 9:29-36, 성서 p.98)
- 21(수) 독서 (로마서 2:17-29, 성서 p.340)
 복음 (마르코 9:37-39, 성서 p.98)
- 22(목) 독서 (로마서 3:1-8, 성서 p.341)
 복음 (마르코 9:40-49, 성서 p.98)
- 23(금) 독서 (로마서 3:9-18, 성서 p.342)
 복음 (마르코 10:1-12, 성서 p.99)
- 24(토) 독서 (로마서 3:19-20, 성서 p.342)
 복음 (마르코 10:13-16, 성서 p.100)

□ 축 사 □

축 하 합 니 다

주교 임명의 회소식, 경하하옵니다. 이 일은 우리들 모두의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그 자리는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오니 건강에 유의하시어 훌륭한 업적을 거두시기를 비웁니다.

이 땅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곳, 그 역사,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고향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고향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감정, 이 애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애함심으로 연결되어 여러 국민이 이룩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도 인류의 역사상에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써 인종의 차별과 국민정서를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국경선을 폐지하라는 뜻의 세계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서의 그의 조국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어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므로써 조국애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기의 조국을 아나, 자기의 교구를 사랑하십니까? 입술에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말합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아나, 교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있는가? 여러분의 요람이 자리잡던 곳 "엄마"라고 사랑스럽게 처음으로 어머니로 부르던 곳을 사랑하고 있는가? 적지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이 내고향" 따위의 말을 입에 달아서서 안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고향아니, 교구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일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지요.

참된 애향자이며 시인인 펠리코 (Pellico) 와 더불어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조국! 조국! 내교구! 내교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참으로 조국과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자아포기로서 충실히 말은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교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자기조국, 교구를 위대하게 만들고 참된 이익을 꾀해야 합니다.

전주 교구 제5대 주교 임명을 듣고
전주 김 영 구 신부

□ 양지쪽 □

대 행 진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같은 경축일에 서울 시가를 누비는 국군의 시가 행진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뉴스영화를 통해서라도 말이다. 바둑판 마냥 잘 들어맞는 대로, 힘찬 발걸음, 능률한 자세, 그 어느 것 하나도 시원스럽지 않은게 없다. 영광된 내일의 희망에 가슴이 벅차기 까지 한다. 그 자랑스러운 대행진에.

국민학교 1학년 때에 어떻게 소풍을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2~3학년 때에는 어린이 날이라고 시가 행진을 하고 알밤만한 사랑을 서너개씩 얻어먹은 기억이 있다. 그때 철부지인 내 친구들의 행진은 그렇게 힘차지도 않았을 것이고, 질서가 있을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는, 내 또래 나름대로는 힘에 겨운 대행진이었음에는 틀림없었을 성 싶다.

오랜 공백 끝에 주교님이 임명되었다. 더구나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우리 교구 출신 신부님 가운데서 말이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을 우리의 걸음걸이가 한시도 쉬어본 적은 없다. 다만 목자없는 양떼들 마냥 어려움을 겪었을 따름이다. 이제 그 어려웠던 우리의 행로에 등대가, 나침반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를 맡기고 따라 나설 목자를 만난 것이다. 우리에게도 대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색색한 국군의 행진만이 대행진이 아니요, 코흘리개 어린 것들의 행진도 대행진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더 알찬 대행진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사랑안에 일치미를 이루어 서로 돕고 감싸며 우리의 험난한 내일을 재촉해야 할 뿐이다. 갈길도 멀고 고달프며, 우리 안에는 병약한 양도, 고집통이 양도 있을 것이다. 대행진을 잘하기 위한 문제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사랑과 이해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맺어질 때 탐스러운 열매가 주저리 주저리 열릴 것이다.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겠지만 사랑과 이해로 우리는 서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교구의 대행진을 지켜보는 많은 눈초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말이다.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중앙성당 열 (☎ 7398)

※ 개업안내 ※

중앙 가방 센터

<여행구 핸드백 학생가방> 도산매

교우에게 특별 할인

중앙성당 상가 노벨제과 옆

방벨라도 (용석)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 (전화 ☎ 6691 교환85번)

□ 인사 말씀 □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에게

—새 주교 임명에 부쳐



존경하는 교구내 모든 신부님들, 그리고 수도자들 안녕 하십니까?

소생이 이번 2월 10일자로 로-마 성좌로부터 전주 교구 제 5대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의 1년 반이란 지루한 주교 공석을 이제야 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그다지도 컸던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교구안에서)이 이루어졌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무능 부덕한 소생이 뜻밖에도 본교구 주교가 되었음은 우리 교구를 위하여 크게 불행한 일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교구내 모든 신부님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신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선배 신부님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이 무거운 직무를 이 미련한 사람이 지게되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우선 지면으로 인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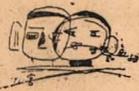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면서

천주교 전주교구 주교 김재택

◆ 약 력 ◆

- 1920. 6. 1 진안군 성수면 오암리 출생
- 1941. 3. 3 서울 동성 상업학교 졸업
- 1947.10.28 서울 성신 대학 졸업
- 사제서품
- 사목 분당 전주 대동. 화산. 남원. 김제. 군산. 중앙. 이리. 전동
- 교구 경리 (1951.5-54.10)
- 부주교 (1962.2-66.7 1972.9-73.2)
- 1962. 5.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참석
- 1973. 2.10 주교피임

의료협동조합 가입하여 건강하고 밝은 내일 약속 받자



창립 총회
1973. 2.20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회의실

매월 400원씩의 회비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무료 혜택은 물론 치료비의 7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의 문의 연락처 @3201 @3498

전북 의료 협동 조합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3498)

19(월) 교리 교실~ 박진량 신부 지도

20(화) 젊은이의 광장

22(목) 여성 교실 (오후 2시)

- 성모님을 닮읍시다(허 메레사 여사)
- 자녀 교육(정주복 선생)
- 외국 문화교실(독일어)

※ 젊은이의 광장 (매주화요일)

성경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가?

(오후 8:00-8:40 유장훈 신부 지도)

건전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으로 젊음을 보람차게

(오후 8:50-9:30 레크레이션 교실)

※근하 신념※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6094

※근하 신념※

동남 샵프 TV 및 스토-브

전주 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요셉(운창)

소

교구장 임명(1973. 2. 10. 교황)
제5대 전주 교구 교구장 김재덕 아우구스띠노 주교
한 대주교님 임원

병상의 한 공렬 대주교님을 위해서 기구합니다.

시

꾸르실로

① 교구 사무국 임원 임명(1973. 2. 1. 교구장)

주간 조성호, 총무 한상갑, 신심 김은홍, 교수 박해근
재무 한수옥, 섭의 광영근, 음악 김규완

② 교구 울뜨레아(1973. 3. 1. 가톨릭 센터)

교구 울뜨레아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2월23일 예정
의 전주 지구 울뜨레아는 3월1일의 교구 울뜨레아로 개
치합니다)

중앙

(전화 ②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사도 회장 김종순

1. 수녀님 이등(우 수녀님, 이 수녀님 감사합니다)
우 수녀님-김천 황금동 본당 책임 수녀
이 수녀님-소록도 본당 책임 수녀
후임-신 마리아 수녀님, 장 세시리아 수녀님
2. 부녀부 간부회의(오늘 공식 미사후, 사제관)
3. 성모회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사제관)
4. 중등부 학생회 임시총회(다음주 공식 미사후)
5. 주일 학교 등록(1학년 신입생은 2월말까지 사무실
로)

6. 주일학교 주일금 봉헌 방법

3월부터는 본당에서 배부하는 봉투에 넣습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2,440원 감사합니다.
- 정성 어린 봉헌금은

내 영혼의 재산 된다 □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훈

1. 꼬미시움 (2월 18일 오후 1시반, 전등)
2. 축 결혼 (2월 20일 11시)
신랑 이 가브리엘 잡철(이갑진 회장 아우)
신부 오 베로니카 순님

- 지난 주일 봉헌금 12,600원
성미 3말 6되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아동 교리 (매주일 오전 9시)
2. 예비신자 교리 (매주일 공식 미사후)
3. 축 영전 (박인식 교육부장 육구군청으로 승진)
4. 각반 반회 날자(3월부터 실시 예정)

1, 2반(매월 15일)	3반(둘째주 화)
4반(둘째주 월)	7반(셋째주 목)
9, 10반(매월 음 10일)	11반(매월 음 12일)
12반(첫째주 목)	13반(첫째주 화)
15반(첫째주 토)	16반(둘째주 토)
17반(둘째주 월)	

- 지난 주일 봉헌금 7,9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부녀회 월례회(2월18일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2월25일)
3. 피정 접수 마감(2월18일)
4. 주일학교에 잘 내보냅니다
5.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참여합니다.
6. 정 바울라 입원(인후동 반장, 성모병원 116호 실에
입원하고 있어오니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 929원
학생회 봉헌금 74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꼬미시움 월례회(오늘 오후 1시반, 유치원)
2. 임시 사도회 (오늘 밤 미사후, 사제관)
3. 어머니 성가대 정기총회(2월19일, 오후 2시)
4. 주일학교에 잘 내보냅니다.

어린이나 중·고등학생 교리 교육에 관심 가지시다.

5. 성심 유치원 졸업식 (2월19일, 11시)
- 지난 주일 봉헌금 26,152원
애령회 특별 성금 5,150원
지난 주간 성미 1말, 현금 450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마티아 범 석규 신부님의 영명 축일(2월24일)을
맞아 신부님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동 사도회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신용조합 월례회 (2월18일 공식 미사후)
 2. 학생회 정기총회(2월25일 공식 미사후)
① 회장단 선거 ② 72년도 활동보고
 3. 피정 참가자 예비모임(2월19일 밤 7시반)
 4.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협조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4,665원 감사합니다.

원 아 모 집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에게 밝고 건강한 교육을 시
킵시다. (원서마감 2월28일, 전화문의 ② 8347)

-성심 유치원-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 덕진 누계 50,000원
전당리 공소(대표 문재원) 5만원
- 복자 누계 175,000원
- 전동 누계 890,000원
전 동 범신부, 이길만(각 5만원)
교 동 김규승(5만원)

- 노송동 김후만(5만원)
- 풍남동 이길용, 이선경(각 2만원)
- 중앙 누계 2,128,500원
진북2동 김금옥, 하덕혜(각 5천원)
중노송동 신영환(2천5백원)